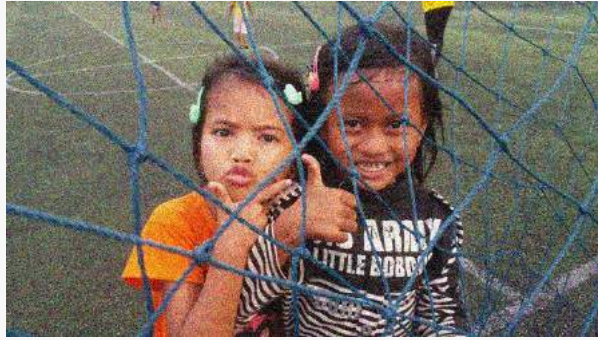


18TH CAMBODIA RAONATTI
2018.11 LIFE STORY



O u r F r i e n d s



아이들로 시작해서 아이들로 끝난 캄보디아에서의 11월
지금도 현재진행형 중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1. 수업일정 2. YI 수업 3. YLC 수업 4. Clean City Campaign
- 5. 라온아띠 프로젝트 6. 일상생활 7. 11월 한 달의 소감 및 편지

11.2018 SCHEDULE IN YI AND YLC

	Mon	Tue	Wed	Thu	Fri
Youth Institute (YI)	Hygiene	Science	Gardening	Cooking Sport	Creating
	현지	채윤, 희진	희진, 지호	All member	지호
	* 재완 : Computer Class in YI every day				
YMCA Learning Center (YLC)	English /K1 Dance /K2,L1	Sport	Music		Environment
	희진, 지호 / 채윤	지호, 현지	현지, 채윤		희진, 채윤, 현지
책임자	분홍색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수업의 '책임자 및 수업 기획자'				

Everyday

Computer Class For teaching the Way of using it

Jae-Wan (Samnang)

11월의 매일,

YI에서 컴퓨터 수업을 진행했다.

미션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지 말고,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라!”



Everyday

Computer Class For teaching the Way of using it

Jae-Wan (Samnang)

11월의 매일,

YI에서 컴퓨터 수업을 진행했다.

미션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지 말고,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라!”

재완의 이야기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이 아닌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라!!”

이번 달 내내 나에게 주어진 컴퓨터 수업의 미션이었다. 처음에 내 머릿속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줄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다. 얼른 학생들이 타자에 익숙하게 만들자, 문서 작성법을 가르쳐주어야지, Power Point도 가르쳐 줘 볼까? 그러나 수업은 내 마음대로 잘 진행되지가 않았다.

어느 날은 내가 학생들에게 절대로 다른 행동은 못하게 하고, 컴퓨터에 관한 것을 가르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학생들이 하나 둘 씩 교실을 떠나 나 홀로 교실에 남아있었던 적이 있다.

그날 나는 정말 속이 상했다. 그리고 교실에 혼자 남아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들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아이들이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여전히 나의 컴퓨터 수업은 실패였다.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재완의 이야기

Everyday

Computer Class For teaching the Way of using it

Jae-Wan (Samnang)

11월의 매일,

YI에서 컴퓨터 수업을 진행했다.

미션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지 말고,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만들어라!”

‘내가 기대하는 학생들의 능력과 실제 학생들의 실력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간단한 타자 연습과 자유시간을 제공하니 이전보다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 내 욕심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부담을 느낌과 동시에 흥미를 잃게 되었고, 내 수업은 실패했었던 것 같다.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나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보아야 겠다.

Monday

Hygiene Class For teaching the Importance of Healthy

Hyun-Ji (Linda)

11월의 월요일,

손 씻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놀이’처럼 손 씻기에 참여했다.



현지의 이야기

Monday

Hygiene Class For teaching the Importance of Healthy

Hyun-Ji (Linda)

11월의 월요일,

손 씻기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놀이’처럼 손 씻기에 참여했다.

YI에서는 ‘위생’이라는 주제를 잡고 수업을 진행했다. 반성할 것이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나조차도 아이들의 위생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먹을 물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내가 손 씻기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그 아이들의 상황에서 중요할까?

라는 생각에 우선순위에서 이 일을 밀어냈던 것 같다.

그러나 위생의 문제는 중요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맞았다.

손 씻기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서, 못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을 재밌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멋대로 단정지어버렸던 나의 모습이 생각나 괜히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Tuesday

Science Class For playing Through science

Chae-Yun (A-ya)

11월의 화요일

음료수, 얼음, 소금, 비닐봉지를 이용한
슬러시 만들기 / 세제, 물을 이용한 비
누방을 만들기 등 쉽고 간단한 소재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는 시간
을 가졌다.



채윤의 이야기

Tuesday

Science Class For playing Through science

Chae-Yun (A-ya)

11월의 화요일

음료수, 얼음, 소금, 비닐봉지를 이용한 슬러시 만들기 / 세제, 물을 이용한 비누방울 만들기 등 쉽고 간단한 소재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조차도 YLC보다는 YI에서 수업을 하는 게 더 편했다. YI는 YLC처럼 아이들이 학원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고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니까. YI는 그냥 애들이랑 노는 곳이니까. 놀기 위해서라면 내가 따로 무언가를 준비해서 갈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파트너이자 YI 담당자인 Nimey는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 5일을 각자 수업으로 나눠서 맡은 지 이제 2주 째. 그 전에도 수업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지만 한 명당 각자 다른 주제로 하루 1시간씩 수업을 맡아 매주 했던 건 아니었다.

YI에서는 수업을 하고 나면 어쩔 땐 수업을 한 시간보다 정리하는 시간이 몇 배로 걸릴 때도 있다. 물 바다가 되어버린 교실을 대청소 하거나, 거품 가득한 마당을 대청소 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다 ‘대청소’로 이어진다.

처음 해보는 거라 그렇게 열광하는지, 너무 신기해서 애들이 눈을 못 떴는 건지. 그래. 내가 수업시간보다 긴 청소를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좋아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머리 속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이다.

Wednesday

Gardening Class For teaching Value of life

Hee-jin (Chiva)

11월의 수요일, 담 리어싸이라는 식물과 함께한 가드닝 수업.

캄보디아에서는 담리어싸이를 주는 뜻은 '너에게 행운을 줄게' 라는 뜻이다. 현재 대략 20개의 행운이 YI 3층 테라스에 걸려져 있다.



희진의 이야기

Wednesday

Gardening Class For teaching Value of life

Hee-jin (Chiva)

11월의 수요일, 담 리어싸이라는 식물과 함께한 가드닝 수업.

캄보디아에서는 담리어싸이를 주는 뜻은 '너에게 행운을 줄게' 라는 뜻이다. 현재 대략 20개의 행운이 YI 3층 테라스에 걸려져 있다.

사실 가드닝 수업은 내가 한 게 없다. 단지 어떤 식물을 하면 좋을지 추천을 받고, 페트병을 자르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소피읍과 소카에게 알려주고, 나는 보조를 했다.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순간 자괴감이 들었다. 분명 내 수업인데 나는 하는 것이 없고, 모든 설명 모든 진행을 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왜 자괴감이 들었을까? 깨달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 '내' 위주의 생각과 '내' 위주의 활동이 주가 되었던 것이다. 나를 버렸을 때 더 많은 것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다.

만약 이 수업을 단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라고 했다면 아마 나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담 리어싸이를 사러 갈 때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흙을 사러 갔을 때도, 페트병을 자를 때도 모든 순간 나는 누군가와 함께 했다.

희진의 이야기

Wednesday

Gardening Class For teaching Value of life

Hee-jin (Chiva)

11월의 수요일, 담 리어싸이라는 식물과 함께한 가드닝 수업.

캄보디아에서는 담리어싸이를 주는 뜻은 '너에게 행운을 줄게' 라는 뜻이다. 현재 대략 20개의 행운이 YI 3층 테라스에 걸려져 있다.

낮선 곳에서 사는 일도,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하는 것도, 만약 내가 혼자였다면 더욱 서툴고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주변인’이 된다는 것은 참 말은 쉬운데 생각하고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주변인’이라는 말 자체가 ‘나’를 버려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까.

이번 가드닝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행운’을 주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식물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보단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그 순간들에서, 만남을 돌아보고, 수업을 돌아보는 내 모습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아마 나에게 ‘행운’은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아닐까 싶다.

Wednesday

Environment Class For teaching The seriousness of Pollution Near by YI

Hee-jin (Chiva)

11월의 수요일, Clean City Campaign
을 YI 학생들과 함께 진행해보았다.

YI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보는 활동.

겨우 30분 만에 10봉지 가까이가 채워
지는 기적.



Wednesday

Environment Class

For teaching

The seriousness of

Pollution

Near by YI

Hee-jin (Chiva)

11월의 수요일, Clean City Campaign
을 YI 학생들과 함께 진행해보았다.

YI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보는 활동.

겨우 30분 만에 10봉지 가까이가 채워
지는 기적.

희진의 이야기

Clean City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서, YI 친구들과 YI 주변, 아이들의 집 주변에서 이 캠페인을 한 번 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진행했다.

결과는 30분 만에 10봉지의 쓰레기 더미.

YI 주변보다 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리버사이드에서조차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다. 심지어 세세하게 주운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이들이 크고 검은 비닐 봉지를 들고, 큼지막한 쓰레기들을 주운 결과가 이거였다.

깜짝 놀랐다.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한 10분 지나자 자신들의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찼다고 새로 달라고 이야기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이 새로 달라고 이야기 하고.

사실 그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주체들은 아이들과 어른 모두였다. 이 캠페인이 끝나고 나서도 그 친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거리에 버렸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이 곳에 있는 것일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Thursday

Cooking Class **For providing food** **And teaching how to** **Make the food**

All members

11월의 목요일,

소시지 빵 위에 양상추 두 장, 볶음 양파, 직접 만든 피클, 소시지, 마요네즈, 케첩까지 아이들에게 핫도그를 만들어주었다.

잘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같이 배가 불러왔다.



모두의 이야기

Thursday

Cooking Class For providing food And teaching how to Make the food

All members

11월의 목요일,

소시지 빵 위에 양상추 두 장, 볶음 양파, 직 접 만든 피클, 소시지, 마요네즈, 케찹까지 아이들에게 핫도그를 만들어주었다.

잘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같이 배가 불러왔다.

아이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그러나 채소를 먹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싫어하는 건지, 안 먹어봐서 생소한 건지를 파악하지 못하겠다. 11월에 시행했던 이 쿂�클래스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당장 12월만 해도 우리의 스케줄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면 이 쿂�클래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었다.

또한 니오머이의 피드백은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식 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음식을 할 때는 칼을 써야 하고, 불을 써야 해서 다칠 염려가 너무 많은데 아이들이 통제가 안 돼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들어와서 이것 저것 만져 보다가 다칠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심지어 YI의 부엌은 1층에 개방형이기 때문에 밖을 돌아다니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고민을 해보았지만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도 고민 중이다.

Thursday

Sport Class For exercise and Grow friendship

Ji-Ho / All members

11월의 목요일,
yi 친구들과 다 함께 풋살장에 갔다.
남자아이들은 축구,
여자아이들은 뛰어놀기.
어떤 것을 해도 같이했기에 즐거웠다.



Thursday

Sport Class For exercise and Grow friendship

Ji-Ho / All members

11월의 목요일,
YI 친구들과 다 함께 풋살장에 갔다.
남자아이들은 축구,
여자아이들은 뛰어놀기.
어떤 것을 해도 같이했기에 즐거웠다.

지호의 이야기

처음 학생들과 함께 풋살장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풋살장에 갔다.

기차가 다니는 철로 옆에서 축구를 하는 학생, 쓰레기로 뒤덮인 바닥에서 뛰어 놀다가 다쳐서 피가 철철 나는 학생.

그 들을 보면 1시간 만이라도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 첫 수업은 너무 힘들었다. 더운 날씨, 다툼, 다침 등 난장판이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 수업을 절대 안 할거야 라고 다짐했다.

또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 번 더 데려가야겠다고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날씨는 좋았고, 사전 교육을 한 덕분인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했으며 학생들도 재미있게 참여했다. 또 한 학생이 나에게 부족한 영어로 ‘다음 주에 또 하자’ 라는 말을 듣고 내가 힘들어도 재미있어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다음을 준비했다.

Sometimes

Repair Work For providing A better Environment to Study

All members

YI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수 공사'.

분위기 전환을 위한 페인트 칠!

천장 물 샘 방지, 도서관 만들기, 책장
만들기, 부엌 공사 많은 공사들이 예정
되어 있지만 아직... 진행되진 않았다.



모두의 이야기

Sometimes

Repair Work For providing A better Environment to Study

All members

YI의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수 공사’.

분위기 전환을 위한 페인트 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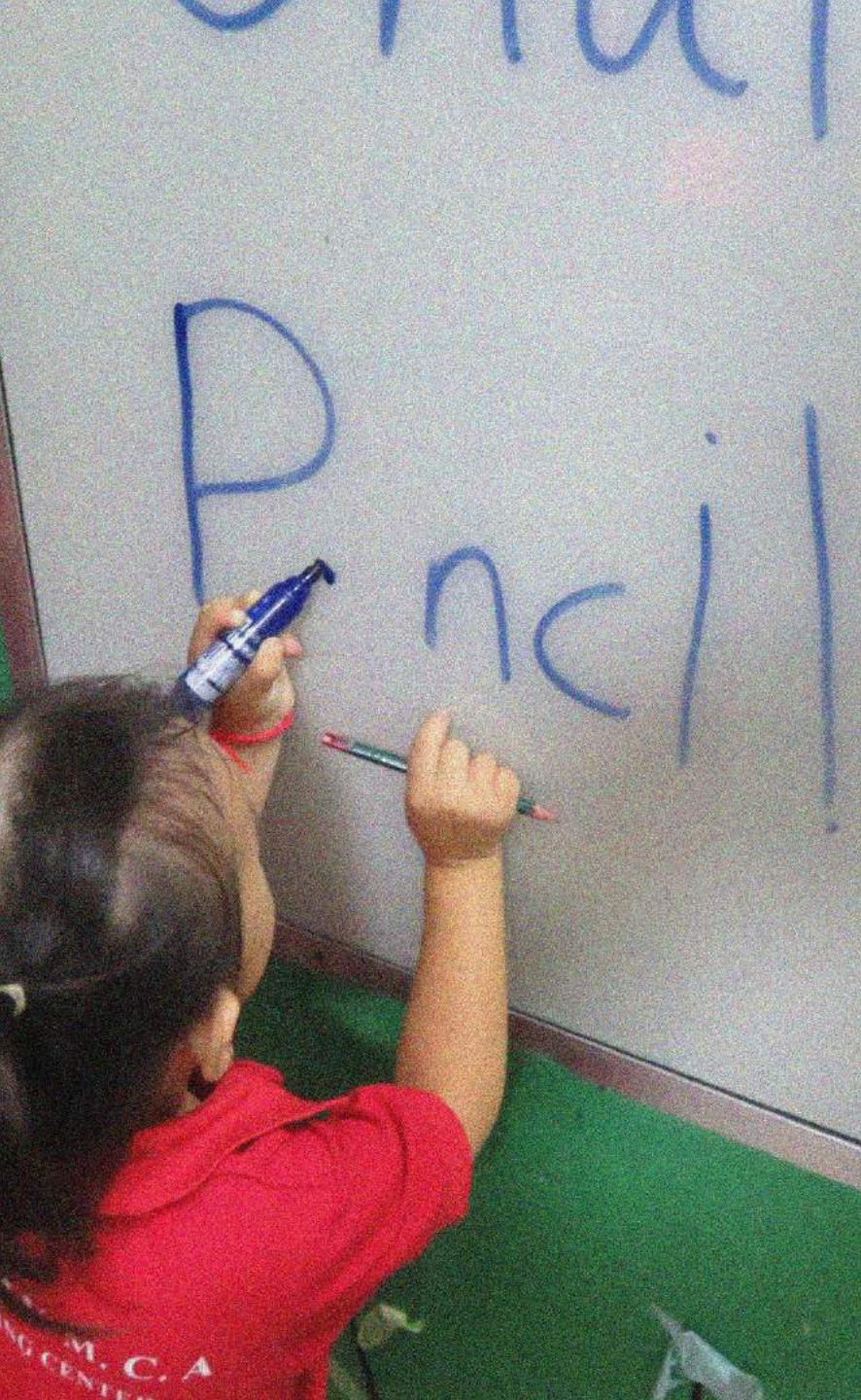
천장 물 샘 방지, 도서관 만들기, 책장
만들기, 부엌 공사 많은 공사들이 예정
되어 있지만 아직... 진행되진 않았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여겨졌던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현재 YI에서는 수도 문제,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외관상의 문제인 페인트부터 칠하기 시작해서 그게 조금 의문이었다. 아직 못 칠한 페인트가 있어 찝찝하다.

사실 아이들이랑 노는 것보다 혼자 페인트를 칠하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했다. 왜냐하면 YI에서 내가 확실하게 해야 하는 역할이 있기도 하고, 수업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직 공사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페인트를 칠하는 그 과정도 즐기고 있는 중이다. 천장을 칠할 때는 페인트가 얼굴에 다 묻지만 그걸 보면서 서로 ‘어끄러냐(못생겼다)’ 라고 놀리는 재미도 있고, 아이들 얼굴에 페인트 묻히는 재미. 같이 쏟아진 페인트 지우는 재미. 다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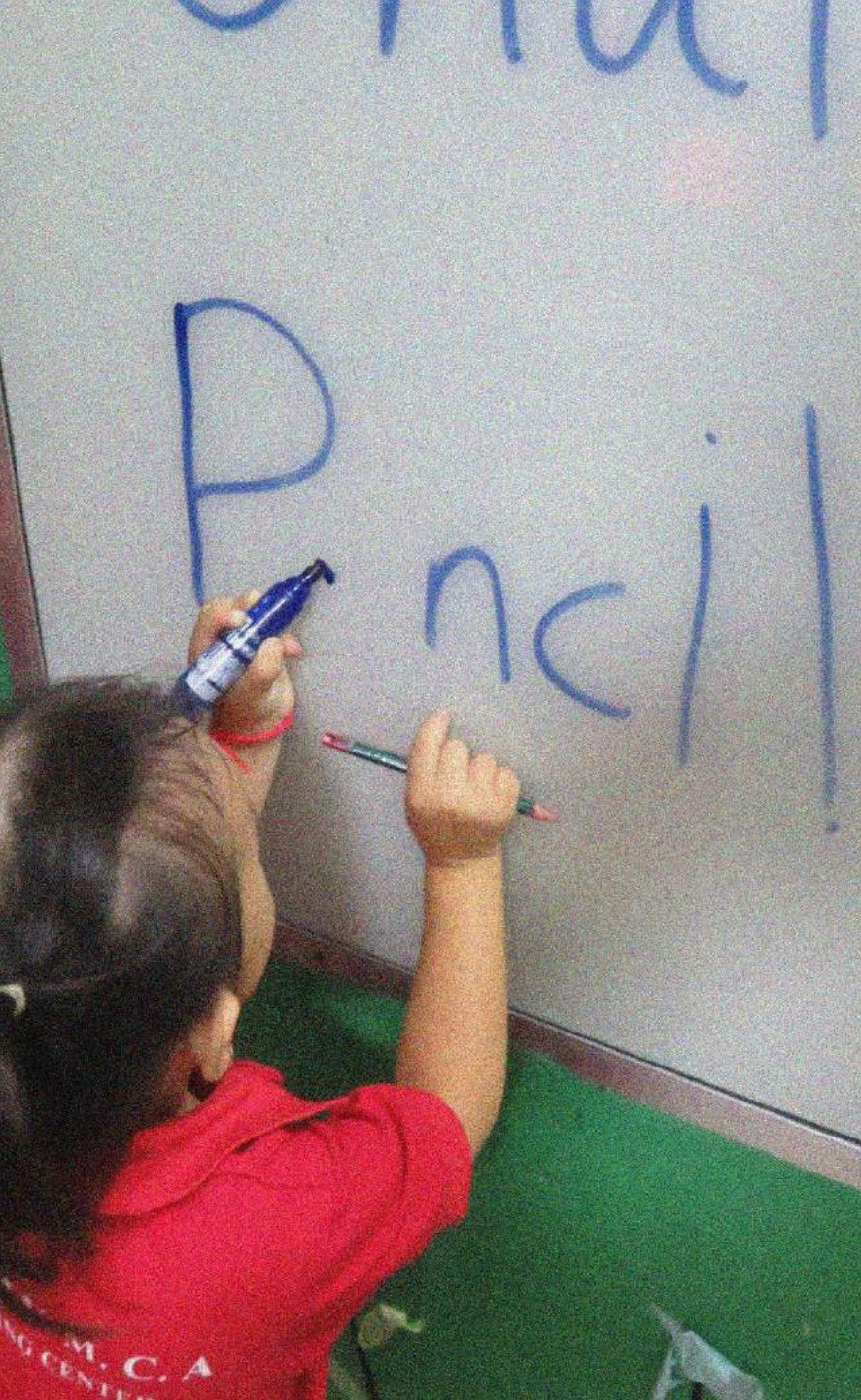
Monday

YMCA Learning Center

English Class For teaching new language to kid

Hee-jin (Chiva) & Ji-ho

11월의 월요일,
유치원 친구들 3살-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수업'
월요일 오전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지호와 희진 단 둘이서
짧은 크메르어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Monday

YMCA Learning Center

지호의 이야기

K1이라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나이는 3-5살.

나는 5살 때 신나게 놀았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라고 한다. 아직 자기 언어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르치기는 하지만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수업을 하다 보면 말을 안 듣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는데, 화를 내고 항상 후회한다. 고작 5살도 안 된 학생들에게 화를 내다니... 나 자신이 한심해지는 순간이다.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도 똑같은 이유로 화를 낸다.



Monday

YMCA Learning Center

Dance Class **For teaching to play** **Through their body**

Chae-Yun (A-ya)

11월의 월요일,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원래는 11월 달의 마지막 월요일 날
부모님들 앞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였
지만 사정상 무산.

다시 다른 수업을 계획해야 하지만
아이디어가 없어서 힘들기도 하다.



Monday

YMCA Learning Center

채윤의 이야기

주말 내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수업 내용을 고민한다. 어떤 수업을 할 지, 새로운 건 무엇이 있을지,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지. 그러다가 ‘합창’을 생각하게 되었다. 마지막 수업 때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이 연습한 춤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과 미팅 후 부모님을 초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차라리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들을 하셨다.

2주간의 수업이 조용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시 수업을 계획 해야 한다.

정말 처음 아이들 앞에서 수업할 때는 불안하고 심장도 너무 두근거리어서 부담감이 너무 심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나은 상태이다.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보일 수업을 생각하지만 더 이상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다.



Tuesday

YMCA Learning Center

Sport Class For exercise and Grow friendship

Ji-Ho

11월의 화요일,
아이들과 함께 ‘스포츠’ 수업을 한다.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위로 받는다.



Tuesday

YMCA Learning Center

지호의 이야기

매주 화요일, 스포츠 수업을 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많았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첫 수업에 들어가보니 학생들은 많이 어렸고, 나는 크메르어를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수업을 하는 도중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한다.

하지만 진짜 힘들어도 내 수업을 재미있어 하고, 서로 하고 싶어 ‘크놈 (저요)’ 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면 또 힘이 난다.

그 학생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 학생들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wednesday

YMCA Learning Center

Music Class Using cups to Teach rhythm

Hyun-Ji (Linda)

11월의 수요일,
‘컵타’ 아이들과 함께 컵으로 리듬을
내보았다.

소통의 문제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 소중한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닫는다.



wednesday

YMCA Learning Center

현지의 이야기

이번 달에는 계획상으로 악기를 가르치려고 했었다. 그러나 악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싶냐는 질문에는 나는 단지 음악이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음악을 가르치는 수단이 단지 악기여야만 했던 걸까?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주고 싶은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다.

또한 이번 달에는 (English) Level 3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소통의 문제 때문에 처음으로 수업에서 울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자신감이 없어졌다. 크메르어와 영어 사이에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나의 잘못인 것 같아 괜스레 움츠려 들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아이들과 점점 더 친해지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아이들과 함께 하며 위로와 힘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한 시간 같다.



Wed & Fri

YMCA Learning Center

Camping For environment And happiness

Hyun-Ji (Linda)

11월의 수요일, 금요일
원래 진행되어야 했던 캠핑이
무산되어 캠핑 내에 있던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운동회' 와 'Eco-bag' 만들기.



현지의 이야기

캠핑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계속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모두들 자신의 수업을 계획하고, 일정을 따라가기에도 바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먼저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나 또한 일정을 진행했다.

이에 맞춰서 사전 교육이 정해지고,하고 싶은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피곤했지만, 설레고 그런 만큼 정말 잘하고 싶었다. 교육을 짜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없이 실수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실행을 코 앞에 두고 있었다.

그 전에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했고, 내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캠핑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지의 이야기

그리고 캠핑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넘어서 자유를 갖기를 원했고, 그 자유를 허용해주는 순간 다른 아이들까지 지켜야 하는 ‘규칙’이란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만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줄 몰랐기 때문에 계속 계획을 수정해야 했고, 그래서 나조차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다.

노력한 만큼 즐거운 캠핑을 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다.

준비한 프로그램은 일과시간에 수업의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캠핑을 하고 싶어했던 마음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나 계획보다 마음에 앞서서 시작한 캠핑이었기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도 든다.



Friday

YMCA Learning Center

Environment Class For realizing the Seriousness of pollution and Thinking our action

Hee-jin (Chiva)

11월의 금요일,
아이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우리의 액션은 무엇일까.



희진의 이야기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2틀 쯤, 우리는 주변 마을은 어떤지 둘러보았었다. 충격을 받았던 것은 사람들이 쓰레기랑 같이 산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쪽, 그게 일상이다.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집 주변에 물이 차면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다. 집 바로 옆, 뒤에 쓰레기가 있고 그 쓰레기들은 닭들이 먹고 있었다. 이게 YMCA Learning Center 바로 주변이다.

처음부터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같이 아이들과 다루어 보고 싶었다. 직접 주변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환경오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느낄까 궁금했다.

이러한 상황이 일상인 친구들도 심각성을 느낄까?

그렇다. 그 친구들도 YLC 주변을 직접 둘러보면서 냄새가 안 좋다고 이야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 각자 자신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어떤 실천 방안이 좋을까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Clean City Campaign With Youth

2018.11.18(일)

캄보디아의 청년들과 함께 ‘리버사이드’라는 캄보디아 핫 플레이스에서 클린 시티 캠페인을 펼쳤다.

우리들이 직접 만든 슬로건

START TO DO

TO MAKE OUR CITY CLEAN



Clean City Campaign With Hyun-Ji

현지의 이야기

클린시티는 내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참여하게 된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만큼 준비기간도 짧았던 것 같고, 부족한 점도 분명 있었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리버 사이드라는 곳에서 캠페인을 했다.

‘우리 주위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강가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주었던 캠페인이었다.

리버 사이드라는 곳은 굉장히 변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았던 많은 지역보다 쓰레기가 적었던 지역이다. 여러 군데에 쓰레기통이 놓여져 있어서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쓰레기를 주우면서 느낀 것은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눈앞에서 보면서도 누구도 그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지 않았다. 캄보디아의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부터 인 것 같다.

또한 나는 이 캠페인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 자원봉사자가 아님에도 끝까지 함께하며 쓰레기를 주워준 시민도 있었고, 쓰레기를 모아 건네준 아이들 등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



Clean City Campaign With Ji-Ho

지호의 이야기

캠페인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다양한 캄보디아의 청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길거리의 쓰레기를 주우면서 옆에서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캄보디아인들이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좋지 않았던 점은 갑작스레 준비된 캠페인이라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프로그램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캄보디아의 외진 지역에 쓰레기가 많은 곳이 많은데 왜 굳이 깨끗하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리버사이드를 가서 했는지는 아직도 의구심이 든다.



재완의 이야기

이 캠페인을 하면서 놀란 부분이 하나 있다. 내 생각에,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도시를 만 들어요.” 라고 말하는 캠페인은 너무나 흔한 캠페인이어서 그렇게 큰 흥미를 이끌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같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쓰레기를 주우며 다니는 우리를 보는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캄보디아에서 캠페인은 흔하지 않아 내가 흔하다고 생각하는 캠페인조차 많은 사람들이 색다른 활동, 흥미로운 활동으로 여기는 것 같다.

Clean City 캠페인을 하고 사실 캠페인에 대한 느낀 점보다는 나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나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 왔고, 내가 어느 환경에 가던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녔다. 나의 기준대로라면 이 캠페인은 흔한 캠페인들 중 하나로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어느 환경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에 따라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아니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려 한 나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채운의 이야기

캠페인의 목적은 “Clean City” 방법은 강 근처 산책길을 비닐봉지를 들고 걸으면서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것. 그렇게 주운 쓰레기의 80% 이상이 플라스틱이다.

비닐 봉지, 빨대, 플라스틱 컵, 빨대 포장지, 과자 봉지, 플라스틱 물병과 음료수 병 쓰기 쉽고, 싸고, 쓰고 나서는 버리면 되는 걸 누가 마다할까.

그런 플라스틱을 우리가 줍기만 한다고 줄어들까?

길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쓰레기의 원인인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솔직히 우리가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든 말든 사람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따로 주워온 쓰레기를 건네줬다.’

일요일 하루. 고작 몇 시간 캠페인이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평소 생각만 했다면 이룰 수 없었을 우리 모두의 나비 효과이다.



Clean City Campaign With Hee-Jin

희진의 이야기

클린시티 캠페인은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한 첫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는 리버사이드에 가서 쓰레기를 주었다. ‘리버사이드’라는 곳은 캄보디아의 변화가이다. 로얄 팔레스(청와대 같은 곳)부터 다이아몬드 아일랜드가 모두 근처에 있다.

그래도 리버사이드는 다른 곳들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별로 없는 편이었다. 쓰레기 차가 잘 와서 치워주기 때문이다. 가난한 동네에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돈을 내야 해서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한 곳에 쌓아놓고 화장실도 없어서 그냥 거리에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곳은 공용화장실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어서 깔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다. 그냥 길거리에 버리기 때문이다. 때로는 강가에 던져버리기도 한다. 사실 가난한 동네와 이 동네의 차이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건 똑같은데 그걸 치워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뜻 깊었다.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려고 오시는 분들, 같이 동참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감사한 분들이었다. 왜냐하면 타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름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같이 동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START TO DO MAKE OUR CLEAN CITY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길.

RAONATTI PROJECT

2018.11

우리가 생각하는
캄보디아의 문제는?

교육문제

- 부실한 공교육으로 인해 문맹률이 높음 (YI경우,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글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 것보단 '의식(衣食)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

환경문제

- 대기오염 : 심각한 매연과 쓰레기 소각
- 수질오염 : 쓰레기를 무분별 하게 버려 강물 및 하천 오염

- **플라스틱 쓰레기**
: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카페를 갈 때, 마트에 갈 때 어디에서든 플라스틱을 사용.
배출된 플라스틱은 길바닥에 마구잡이로 버려짐

What do you think of the using plastic?

Nice to meet you. We are Raonatti.
Raonatti is volunteer from Korea. We want to be friends with Cambodian.
Also, we are considering how to be good friend and how to solve social problem.

While we live in Cambodia, we discovered some problem related with environment.
We've had a lot of concerning and observation.
Finally, we discovered that most people used a lot of plastic bag, the cup of plastic and the dish.
So do we.

We consider this problem continually.
Is it just us who take this problem seriously? Or are Cambodians think so, too?
So, we decided to ask you this problem.

What do you think of the using plastic?
Have you ever thought this problem once?
We want to know how do you think and feel about this problem.
We hope Cambodia will be a better environment.

Thank you for attending this survey. This research will be the basis for making our project about plastic free later.
If you have any question this project, you can touch anytime you want.

E-mail : raonattiproject@gmail.com
Phone : 0973-662-047

* 필수 항목


1. What is your gender? *
성별을 자유롭게 표시합니다.
☐ Female
☐ Male
☐ Prefer not to say
☐ 기타

2. How old are you? *
현재 나이 자유롭게 표시합니다.
☐ 10-20 age
☐ 20-30 age
☐ 30-40 age
☐ 40-50 age
☐ more than 50 years old

3. What do you do for living? *

4. Do you think plastic is good thing or bad thing for you? *
당신에게 플라스틱은 좋은 것입니까?
☐ Good thing
☐ Bad thing

5. Do you know the disposing process of plastic waste?
플라스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Yes
☐ No

6. How do you think about this picture?


7. Do you want to reduce use of plastic despite of the inconvenience? *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싶은가요?
☐ Yes of course
☐ No, it's already inconvenient

RAONATTI PROJECT

2018.11

캄보디아의 플라스틱 오염 심각도

90

- **90%** 이상의 새와 물고기의 위에서 플라스틱 발견
- **60%** 이상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것을 섭취 중

1,000

- **약 1,000만개**의 플라스틱 백을 프놈펜에서 매일 사용 중

(ACRA Foundation)

800

-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메콩강에 버려지고 있음.

(UNDP)

- **프로젝트 주제 : Plastic Free**

- **주제 선정 이유**

1. 교육문제의 경우, 이미 YLC와 YI에서 교육활동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들이 문제점이라고 꼽은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

2. 약 2-3개월을 살면서 캄보디아에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낌.**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의 변화는 물론,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었음.

RAONATTI PROJECT

2018.11

과연 우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회의와 고민 끝에 ‘플라스틱’ 문제를 선정하였지만,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시행 하였다.

RAONATTI PROJECT

2018.11

SURVEY

- 목적 : 캄보디아 사람들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
- 조사 지역
 - YMCA와 YI 인근 지역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 우리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캄보디아 봉사자들을 통해 각 대학교에서 조사를 실시
- 조사 기간 : 10월 22일 - 11월 20일
- 조사 방식 : 면대면, 설문지 (크메르어로 번역)

What do you think of the using plastic?

Now to meet you, We are Raonatti.
Raonatti is a student from France. We came to the Khmer with "Cartoonist".
Also, we are considering how to get good things and how to solve local problems.

When we live in Cambodia, we discovered some problems related with environment.
We are happy to be at Cambodia and we are happy to be here.
Finally, we discovered that most people used a lot of plastic bag, the cup or plastic used the most.
So, we are...

How consider this problem differently?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problems. Do you think it is a big problem?
Yes, we need to solve this problem.

What do you think of the using plastic?
Have you ever thought this problem again?
We want to know how it is used and how to solve this problem.
The Raonatti will be a better environment.

Thank you for attending this survey. This Raonatti will be the basis for Raonatti for a better world.
If you have any question this project, you can email Raonatti you want.

E-mail: raonatti@gmail.com
Phone: 091 888 888

1. What is your gender?

☐ Male ☐ Female

☐ Male ☐ Female

2. How old are you?

☐ 10-20 age ☐ 21-30 age ☐ 31-40 age ☐ 41-50 age ☐ more than 50 years old

3. What do you do for living?

☐ Student ☐ Worker ☐ Farmer ☐ Other

4. Do you think plastic is good thing or bad thing for you?

☐ Good thing ☐ Bad thing

5. Do you know the recycling process of plastic waste?

☐ Yes ☐ No

6. How do you think about this picture?

☐ I like it ☐ I don't like it

7. Do you want to reduce use of plastic waste in the environment?

☐ Yes ☐ No

RAONATTI PROJECT

20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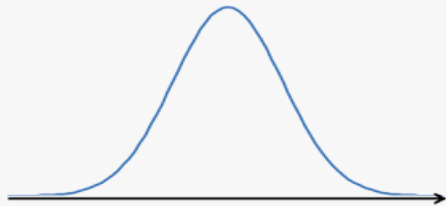
Question in survey

1. What is your gender
2. How old are you
3. What do you do for living
4. Do you use plastic often?
5. How do you think plastic i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for you?
6. Do you know the disposing process of plastic waste
7. How do you think about this picture
8. Do you want to reduce use of plastic despite of the inconvenience?
9. How can we reduce the use of plastics? Could you give any ideas?
10.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could you write down your email or phone number?

RAONATTI PROJECT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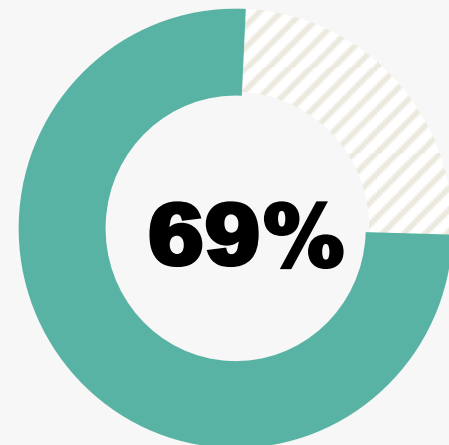
1. 표본 : 64개 표본 (표본 중 84% 약 54명이 학생, 대학생 / 나머지는 지역 주민 및 상인
2. 자료 정리
: 캄보디아 사람들의 플라스틱 사용은 '정규분포'와 유사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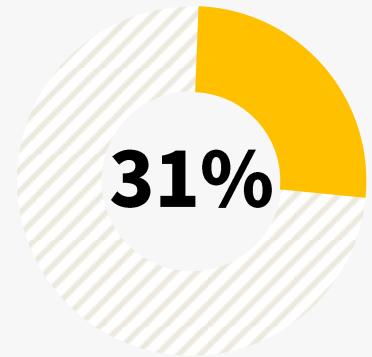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을 보면 '좋지 않은 것' 이라는 생각이 대다수임.

(Q5에서 69%가 Bad, 31%가 Good 이라고 응답)



B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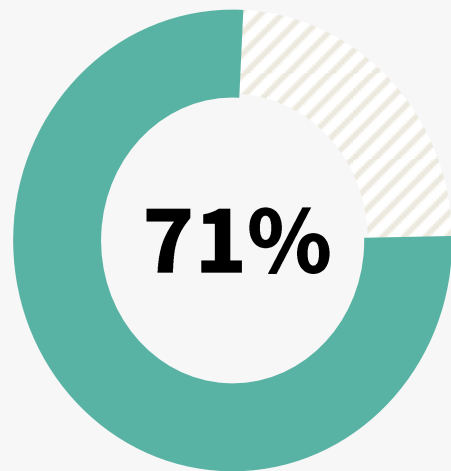
Good

RAONATTI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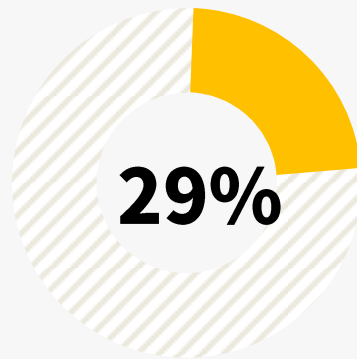
조사 결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이 다른 쓰레기들보다 처리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Q6에서 71% Yes, 29% No라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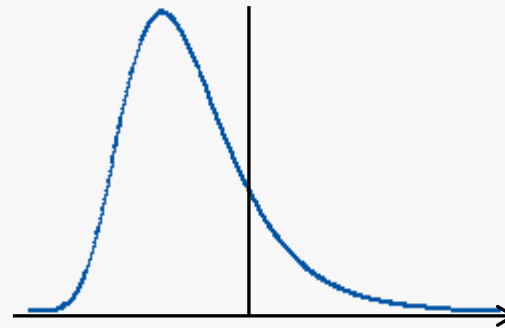
Already know



Don't know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은 나쁜 것이라 생각하고, 플라스틱의 처리과정이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 하고 있음.

(플라스틱은 나쁜 것, 처리과정이 복잡한 것을 알고 있으면 왼쪽 아래와 같은 비정규 분포를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실제로는 정규분포와 유사한 사용량을 보여줌)



RAONATTI PROJECT

2018.11

조사결과

따라서 우리만 ‘플라스틱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으며 단지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그래서 생각했다.

‘편리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플라스틱.

어떻게 하면 줄여볼 수 있을까?!

실제로 ‘PLASTIC FREE’를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 다 같이 함께 14일 동안만이라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20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14일 동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총 840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고 있었던 플라스틱.

우리가 얼마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기간 14일.

25명, 하루 3번, 14일
플라스틱을 같이 줄여볼까?
= 최소 840번!

PLASTIC FREE FOR 14 DAYS

PLASTIC FREE FOR 14 DAYS

- 목적 : 실생활에서 사람들과 함께 플라스틱을 줄여보자.
- 내용 : 14일 동안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첫 날과 마지막 두 번의 워크숍을 진행해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 대상 : 캄보디아 청년
- 기간 : 2018/12/23 – 2019/01/06

RAONATTI PROJECT WITH HYUN-JI

현지의 이야기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교육활동에 집중해서 그런지, 정작 주변의 문제들을 살펴보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이번 프로젝트는 나에게서는 의미가 남다르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서 많은 토의를 했고, 그 토의에 걸쳐 우리가 완성해나갈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 직접 우리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은 새롭고 신기하다.

아직 완벽히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인으로서 우리 주위를 보고 현지인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한편, 정작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함께 할 사람들은 현지인이어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언제나 새로운 것은 ‘낯설다.’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나 또한 처음에 여기에 왔을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낯설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마냥 좋을 수는 없어서 이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좁혀가야 하는지가 우리 프로젝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RAONATTI PROJECT WITH CHAE-YUN

채운의 이야기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편리함”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모든 길거리 음식 포장 용기가, 스티로폼과 비닐봉지이고 만들어서 파는 음료일 경우 다 플라스틱 컵에 담아서 빨대를 꽂아 준다.

분명 지역 훈련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에서 가지고 온 텀블러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직접 눈으로 보고 충격을 먹었지만 그 때 뿐이었나 보다. 점점 모든 게 ‘당연해’ 지고 있다.

편리함을 포기하고 불편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어렵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고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체로도 좋은 변화가 아닐까. 우리는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캄보디아 사람들과 같이 해보려고 한다.

RAONATTI PROJECT WITH JI-HO

지호의 이야기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주제를 플라스틱으로 정했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다.

오히려 캄보디아 인들보다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분명, 이 나라 사람들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일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그 후에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플라스틱을 줄여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RAONATTI PROJECT WITH JAE-WAN

재완의 이야기

타국에서 처음으로 기획해보는 프로젝트라서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캄보디아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 프로젝트에 관해서 우리끼리 토의를 할 때에는 한국어로 막힘 없이 자유롭게 하였지만, 이를 현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현지 사람들과 같이 토의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매끄럽게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러한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자 나도 모르게 현지 사람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하지 않게 되었고, 어느 순간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기획이 되고 시행할 시기가 다가오니 소통의 부재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통의 부재라는 작은 부분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RAONATTI PROJECT WITH HEE-JIN

희진의 이야기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보고, 우리만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도 해보았다. 그러나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나’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캄보디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논의해보고 싶었다.

이 프로젝트를 현지 담당 간사님께 보여드리고 얻은 피드백은 ‘왜 YI에서는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YI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였다. 맞다. 사실 YI는 깨끗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쓰레기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 문제 의식도 없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다. 어떤 대상들과 우리가 함께 하면 좋을까? YOUTH인가 CHILDREN인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이 프로젝트가 단지 ‘우리’만의 프로젝트가 아닌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단 되든 안 되든 실행해보고, 그 다음의 느낌은 그 다음에 적어야 겠다.

11.2018 DAILY LIF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Meeting with Nimey	3 Exchange Party Good bye 덴마크
4	5 MAKRO	6 단수된 날	7 MAKRO	8	9 Independent Day 이온몰	10 까까다&빠냐 만난 날
11 Clean City 캠페인 회의	12 Meeting with Nimey	13 현지 생일	14	15 MAKRO	16 Meeting with Nimey	17 World Week of prayer
18 Clean City 캠페인	19 이온몰	20 Good bye So Pheap	21 with Nimey	22 Water Festival	23	24
25	26	27	28	29 단수된 날	30 Meeting with Bunthok	



MEETING WITH NIMEY AND SOPHEAP

매주 금요일 AM 12:30,

YI 담당자 니므메이와 어시스턴트
소피읍과 함께 미팅을 갖습니다.

미팅의 내용은 YI수업 피드백 및 어
떻게 조금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눕니
다.



Nimey
(YI Director)

So pheap
(Assistant)

EXCHANGE PARTY GOOD BYE DENMARK

2018.11.3 (토)

캄보디아 친구들, 우리들, 덴마크 친구들이 각자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 서로 교환하고 게임을 하면서 친목 도모를 하는 Exchange Party.

캄보디아에 와서 맨 처음으로 만났던 봉사자 'Lea and Maibritt'

11월 활동을 마지막으로 다시 덴마크로 떠나갔다.

이 파티를 통해 그들과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기뻐다.



AEON MALL FOR CELEBRATING HYUN-JI'S BIRTHDAY

2018. 11. 9 (금)

현지의 생일을 맞아 간 'AEON MALL'
정작 현지는 함께 볼링을 치지 못했
다. 허리가 아픈 우리 김복치...

대신 잘 먹고 왔다.

다시 한 번 현지야, 생일 축하한다!
어디 아프지 말고, 남은 2개월 잘 보
내자!



HANG OUT WITH KAKADA AND PANHA

2018.11.10 (일)

Panha : 크메르어 선생님

Kakada : Panha 남자친구!

그들과 함께 리버사이드, 로얄 펠리스, 다이아몬드 아일랜드 등 여러 곳에 놀러갔다.

우리 크메르어 알려주느라 고생하는 Panha, 고마워!



WORLD WEEK OF PRAYER WITH CAMBODIAN

2018.11.17 (토)

캄보디아 YMCA에서 진행하는
WORLD WEEK OF PRAYER.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많은 캄보디아 청년들과 우리와 함께
하는 캄보디아 YMCA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GOOD BYE SO PHEAP (OUR GENTELMEN)

2018.11.20 (화)

우리의 어시스턴트 So pheap이 떠났다.
겨우 한 달 함께 했는데...

더욱 많이 신경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과 1달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들을 위해 고
생한 So pheap에게 참 고맙다.

So pheap의 이름의 뜻은 'Gentelman'
그는 언제나 우리의 친구이자 젠틀맨이다.



WATER FESTIVAL WITH NIMEY AND HER FRIENDS

2018.11.21-23

크메르어 : 먼엄뚝

캄보디아 최대 물축제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보트를 볼 수 있다는 보트 레이싱까지! 이 날은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프놈펜으로 오는 날이다.

니으머이와 니으머이 친구들과 함께 '먼엄뚝'을 즐겼다.

사람에 치여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안 비밀!



WE COOKED A LOT OF FOODS.

매일 아침,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항상 고민한다.

지호와 채완, 현지가 ‘고수’를 잘 먹지 못해 밖에 나가지만 하면 먹는 양이 1/2로 줄어들어 집밥을 만들어 먹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들 요리를 잘한다.



DO YOU KNOW AEON MALL?

프놈펜 최대 'MALL' 이온몰!

1층 : 식재료 및 화장품

2층 : 옷 및 음식점

3층 : 놀이공원, 볼링장, 영화관, 오락실
없는게 없는 이온몰.

일본에서 만들어 '한국' 음식점도 많이
들어와 있다.

다만 가격은 다른 곳에 비해 비싸다.

이곳은 이온몰 2 →



DO YOU KNOW DIAMOND ISLAND?

크메르어 : Koh pich

캄보디아에 있는 일종의 놀이공원!

가격 : 한 번 기구를 탈 때 단 돈 1\$ 정도?!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놀러 가기 좋은 곳이다.

다만 어지러워서 그만 타게 해달라고 소리쳐도 들어주지는 않는다...





Hyun

유독 힘들었던 11월

Ji

Linda

유독 11월에는 소중했던 사람들을 많이 잃었다. 그 우울 속에 빠져서 한동안 허우적거리다, 반쯤 달려온 나의 여정을,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딱 반이다. 소중한 것들은 떠나가기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그러나 때로, 나는 다짐보다는 지금 밀려오는 감정 때문에 주저 않는다.

떠나 가버린 사람들은 추억이 되고, 영원한 기억으로 남지만 더 이상 내 곁에 그들이 없다는 사실이 그저 슬펐던 순간이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정말 사실이 될까봐 무서웠다.

그러나 나는 떠나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센터의 선생님, 캄보디아 팀의 팀원이기도 했다. 간절하게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에 나는 다시 나의 일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 버거웠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살까봐, 아무렇지 않은 채 살까봐, 사실 아닌데...

매 순간이 무서웠다.



Hyun

유독 힘들었던 11월

그럴 때 힘이 되어준 건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이었다. 끝까지 말 없이 나의 결정을 믿어주고, 들어주고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매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Ji

Linda

그저 슬퍼하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웃을 수 있었다.

끝없는 우울과 죄책감에 웃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었다. 나만 행복한 것 같아서, 내가 '감히' 행복해도 되는가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팀원들 곁에선 웃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고, 감사한 사람들인지 알게 해주고, 나 또한 그들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맘껏 많이 먹고, 내 이름도, 나와 그의 추억까지도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

사랑해서 감사한 순간들이었다.



Jae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Wan

이번 한 달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캄보디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서로에게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서로 마음 을 열고 다가오려는 노력에 금방 해결이 되었다. 마음 한 편으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무척이나 좋았지만, 한 편으로는 일정이 끝난 뒤 헤어짐을 생각하니 무척 Samnang 이나 마음이 무거웠다.

YI의 친구들, YLC의 친구들, 선생님들, 동네 이웃주민 분들...

그래, 아직 나에겐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헤어짐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함께 더 많은 추억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Ji Ho

참 시간 빠르다.

11월 보고서를 쓰면서 드는 생각은 “참 시간 빠르다.” 이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새로운 문화, 음식, 빠듯한 일정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은 D-day를 계산했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1월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 팀원들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다. 11월, 체력적으로는 너무나 좋았다. 하지만 몸이 안 좋은 날이 생각보다 많았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 때마다 옆에서 걱정해주는 팀원들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괜찮아”,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등 ‘그냥 날 내버려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생각한 라온아띠는 그 나라에서의 생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같이 간 팀원들간의 팀워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점을 스스로 한 번 더 상기해 남은 2개월 팀원들과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참 시간 빠르다.

기
호

그리고, 나는 삭발을 했다. 많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금 아니면 한국 돌아가서 삭발을 못할 것 같았다. 여기서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냥 밀었다.

둘째, 운동 선수들은 성적이 나쁘거나 자신이 나태해졌다고 느낄 때 간혹 삭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진다. 나도 내 몸과 마음이 나태해졌다고 느꼈고, 남은 2개월을 더 열심히 살아가자 라는 마음에 삭발을 했다.

셋째, 캄보디아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짧은 머리가 많아서 삭발을 했는데,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이 나라 사람들은 삭발한 머리를 안 좋아한다고 한다.

그리고 남은 2개월 동안 목표가 생겼는데 건강한 몸매를 만드는 것이다. YI에서 축구를 하면 모든 학생들이 윗통을 벗고 하는데, 나도 벗고 같이 살을 부딪히면서 축구를 하고 싶는데 내 몸 상태가... 좀 더 건강한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과 살을 부딪히면서 운동을 하고자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미 밀어버린 머리, 만족하면서 남은 2개월을 잘 살다 가겠다.



Chae

‘잘’ 지내는게 대체 뭐지?

어느 샌가 캄보디아 ‘살이’를 한 지 3달이 되어간다. 적응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바로 활동을 해야 했고, 활동을 하면서 적응을 했다. 그리고 근 한 달 간은 정말 주말도 없이 지냈다.

Yun

같이 지내던 덴마크 친구들과도 이별을 하고, Clean City 캠페인도 하면서. 3일 간의 휴일을 위해 Water Festival을 기다렸지만 결국 중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A
ya

중간점검이 끝나면 12월이 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활동을 하다 보면 12, 1월이 지나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겠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 적은 없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나태해진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제는 뭐가 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잘 하는 건지, 저렇게 하면 잘 하는 건지. 그냥 잘 지내면 잘 하는 건지. 내 목표는 잘 살다 가는 거였는데 ‘잘’이 뭐였더라.

잘 지내기가 뭐더라?



Hee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달이었다. 비자 문제가 생겨서 한 동안 들쭉거렸고, 갑작스런 YI 수업 준비로 인해,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YI 담당자의 의견은 어떤지 제대로 듣지 못했던 소통의 문제도 있었다.

Jin

그리고 나는 처음 왔을 때 했던 고민이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과연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Chiva

YI에서 지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가 걱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집에 아무렇지 않게 데려가기 시작했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자기 공책을 놓고 왔다고. 집에 가면 한 평도 안 되는 방이 쪽 줄지어 늘어져 있고, 그 안에 5명 많으면 7-8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화장실도 없어서 대부분 밖에서 볼 일을 보거나 샤워나 빨래는 비가 올 때 한다.

어떤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본 어른들은 구걸을 하거나 물건을 파시거나 아니면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다. 때로는 도박을 하셨다.



Hee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만약 한국이었다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땠을까. 참 어두웠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참 해마다. 즐겁고, 그 나이에 맞는 어린애들 같다.

Jin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눈을 마주치면서 웃는 일들이 잦아지고, 서로를 안아주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아이들에게 애정이 생기고 고민이 된다.

Chiva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이 미래에는 무엇을 할까.

이 아이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대체 그 일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맞는 건지,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YI에서 본 친구들이 자신들의 어여쁜 웃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FINISH?

MCA



TO. 현지에게

현지야 아무래도 너랑 나랑은 서로 너무 많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름에 대해 최대한 이해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너랑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하나 느낀 것이 있어.

우리가 처음에 양산에서 함께 지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싸웠는데,
지금은 처음보다 싸우는 횟수가 많이 줄었더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

이렇게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같이 잘 지내는 날도 오겠지?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P.S 이 사진 내가 찍었지만 참 잘나왔다.^^



TO. 희진에게

희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니?

같은 팀인데 안부를 물어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물어볼게.

캄보디아 생활하는 건 어때? 힘든 건 없고? 익명이 아니었다면 대답도 들을 수 있었겠지만 아쉽네.

그래도 희진이는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해.

좀 많이 아프긴 하는 ‘병약’ 소녀이지만 나머지는 다 잘하니까. 만약 고민거리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나무 숲이 되어줄게.

사실 내가 더 말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ㅎㅎ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잘 지내다가 한국 돌아가자 ㅋㅋㅋ



TO. 채운에게

너를 처음 봤을 땐 그제 눈물 많은 친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엄청 걱정도 했지.

캄보디아에서 많이 울면 어떡하지??

근데 막상 캄보디아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너는 그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고, 멘탈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친구인 것 같아!

이제 캄보디아 생활의 반을 지나고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건강하고,

잘 마무리하다 갔으면 좋겠어~

P.S 나중에 지호랑 너 보러 구미 놀러 갈게 ㅎㅎ



TO. 지호에게

지호야 맨날 틱틱거리긴 해도, 너가 제일 성실한거 알고 있어.

다른 팀원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항상 술선수범해서 나서주고,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싫은 내색 하나 안 하고 그냥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 힘쓰는 건 좀 자제하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부순거니.... 너의 손에 사라진 물건들을 애도하며.... 파괴왕 장지호...! (장난인거 알지?)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조금 쉬고, 힘들면 힘들다고 께병도 부리렴.

맨날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사양만 하지 말고. 너 특히, 약 먹으라고 걱정해주면 자기가 약쟁이냐고 안 먹는다고 하잖아.

남의 몸 걱정해주는 만큼 니 몸도 더 챙겼으면 좋겠다. (다른 팀원들이 아프면 좋은 음식 검색해보고 그러는데 니 몸 아프면 괜찮다고만 하잖아)

남은 2개월 같이 잘 살아보자. 감기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P.S 지호야 억지로 웃으니까 더 못생겼다....



TO. 재완에게

재완아 요즘 살이 많이 빠져서 걱정했는데, 식욕을 다시 회복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식욕 잃지 말고!

처음에 네가 살이 빠지는 게, 네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싫다고 했던거 생각나니? 그 때 완전 웃겼는데 초심 잃지 말자 >_<

그리고 항상 힘든 일 있으면 먼저 하고, 다른 팀원들도 잘 챙겨줘서 고마워!

말로 하긴 쑥스러우니까 편지로 할게! 이해해줘. 그래도 너 보면서 많이 배운다. 진심으로 고마워!

앞으론 종종 반말도 쓰게 해주고! 양? 막상 쓰니까 또 재밌다. ㅋㅋㅋㅋ

우리 반이나 지나왔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시간들 동안 너와, 우리 팀과 함께여서 과거는 그리운 추억이 되고, 미래는 기대되는 내일이 되는 것 같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무뚝뚝하게 말을 하지만 행동은 누구보다 따뜻한 진정한 촌데레ㅋㅋㅋ 안데레씨! 아무튼 KTV는 안 된다... 내 눈에 흠이 들어가도 오토바이만은 안 돼... 생각도 하지마 알겠지?! 그럼 이만~ 건강 챙기고, 너도 이제 1달 있으면 26살 이야...^^ 반 오십 지났다!



**THANK YOU FOR
READING OUR STORY**